



流通마진 줄여 소비자보호

許南薰
〈商工部流通輸入局長〉

流通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는 諸機能이므로 그 主體인 생산자, 도매업자, 소비자, 그 客體로서 농·수산물, 공산물 등을 비롯하여 운송, 보관, 포장, 하역등 物的流通과 통신, 정보, 금융·稅制등 助成部門까지 그 한계가 지극히 광범위하다.

◇ 수퍼제인 開店 現況 (8.30現在)

區 分	74		75		增△減	
	會社數	店舖數	會社數	店舖數	會社數	店舖數
政府指定 수퍼제인	9	93	10	200	1	107
地方長官指定 "	5	17	9	110	4	93
計	14	110	19	310	5	200

◇ 連鎖店 現況 (8.30現在)

서울	釜山	京畿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計
2,077	514	352	153	547	82	58	210	931	231	160	5,684

流通構造改善이란 과제는 오히려 그 中樞的인 都小賣機關에 대한 문제. 해결보다도 物的流通과 그 助成部門의 개선이 곧 유통구조개선 의 契機이기 때문에 流通構造改善을 위한 都小賣業近代化란 극히 제한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都小賣業이 국내 총생산에서 점하고 있는 비중은 18.4%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같은 都小賣業의 현황을 보면 ① 流通기관 의 낙후=資本의 규모, 종업원수, 賣場面積등이 지극히 영세하고 가족중심의 生業的경영, 재무구조의 취약, 시설의 불비

② 流通機能의 構造的矛盾=도소매 기능의 未分化, 代理店의 利權化, 제조업자에 의한 유통기관의 從屬性

③ 流通秩序의 不條理=買占賣惜 행위의 성행, 商去來질서의 문란, 소비자의 폐습

④ 流通造成部門의 未備=法制的미비, 금융稅制지원이 미약한 것등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유통단계가 다기화되고 流通마진이 높고 가격체제가 무질서하고 소비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특히 작년부터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유통구조 개선에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시책을 보면 ① 大型小賣機構의 개발보급 ② 중소기업의 連鎖化 ③ 제대시장의 근대화 ④ 農協連鎖店의 대폭증설 ⑤ 지원시책으로서 工場渡가격에 의한 물량 購入보장과 金融稅制支援등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大型소매기구인 슈퍼마켓은 8월 말현재 체인본부가 10개(정부지정)賣場이 3백 10개, 중소기업 연쇄점은 체인본부가 13개, 加盟店舖가 5천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에 의한 市場점유율은 평균 전체물량의 10%미만이지만 이로 인한 파급영향은 다른 측면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각 主體別로 보면

① 生産者側面=생산자는 그들의 생산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전통적인 特約대리점이나 직매점등 기존의 유통 채널만으로는 곤란할것이며 政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小賣店舖의 연쇄화사업에 따른 새로운 루트를 확보하여야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意識構造에 一大變革을 일으키고 있다.

② 特約代理店側=정부의 流通구조개선시책으로 가장 그 存立의 위협을 받고있는 것이 이들 代理店업자들이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대리점제도를 개선하여 유통단계를 최소한으로 단축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가능한한 이들의 저항없이 정부의 시책방향에 흡수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이 대리업자들도 점차 業態를 전환해나가야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

③ 小賣業者側=소매업자는 현재 다양한 루트를 통한 商品購入으로 流通經費의 부담이 과중해서 상품의 공동구입과 工場渡價格에 의한 구입으로 連鎖化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제 어느 체인에라도 加入함이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④ 消費者側=所得水準의 향상에 따라 극대화된 소매기관의 활용과 저렴한 상품가격으로 슈퍼체인등 連鎖化된 집포의 활용도가 높아져가고 있다.

이상과 같이 流通關係者인 生産者, 代理店, 小賣店, 소비자등이 모두 정부의 새로운 流通構造에 의존하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겠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한 流通構造改善施策은 예상외로 급속도로 추진될 전망이 뚜렷하다고 느껴진다.

物價를 안정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서는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流通構造改善작업은 우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아래서 가까운 것부터 또 우리 힘만으로도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곧 착수해야할 都小賣業近代化작업의 基本방향을 몇가지만 들여보면 다음과 같다.

① 市場近代化

▲ 建物市場化=시장을 場所의 概念으로부터 建物概念으로 바꾸어 非衛生的이고 번칙적 市場운영형태를 시정함으로써 市場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하겠다.

▲ 都賣市場과 小賣市場의 區分育成=우선 都賣市場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零細小賣商의 百貨店」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여야겠다. 지금의 소매상 상품구입 루트를 보면 東大門시장

南大門시장, 代理店, 도매점, 생산자, 自轉車配達夫에 이르기까지 多樣하기 때문에 이로인한 流通費用의 가중, 상품의 高價購入의 결과를 가져온다.

綜合都賣市場이 發展되면 소매상의 One Stopping 同時配送이 可能할뿐 아니라 生産者立場에서도 都賣市場을 活用하게 되므로 기존代理店등 多量한 유통경로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

② 百貨店の直營化誘導

지금의 百貨店중 몇개를 제외하고는 賣場의 대부분이 賃貸운영되고 있으므로 상품가격이 비싸고 통일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백화점으로로서의 면모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의 개념이 建物化됨으로써 一定率이상 直營化되지 않는 백화점은 일종의 시장에 불과하게 된다.

③ 連鎖店の 건전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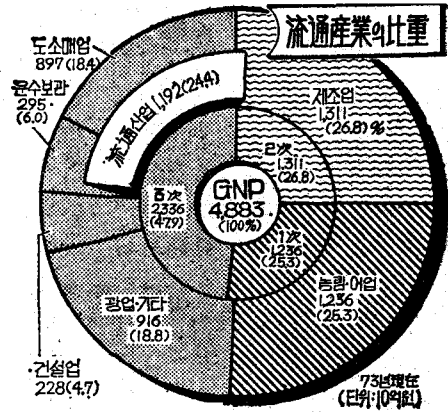
현재의 連鎖店운영은 法的 뒷받침이 없이 物量의 工場渡購入保護등 단순한 行政支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연쇄점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모든 소매점을 연쇄화시키고 모든 商業體系를 조직화해 나가도록 하여야겠다.

다만 加盟店の 保護,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法的 뒷받침이 시급한 실정이다.

④ 直賣店과 特約代理店の 규제

생산자에 의한 直賣店이나 그들과의 특별계약관계에 있는 概念과 機能이 무분별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직매점은 小賣業으로, 特約代理店은 도매업으로 한계를 명백히 하여야겠다.

다만 都賣店은 專門都賣店과 綜合都賣店으로 구분하고, 産業用品, 重量品등 特殊品目的 경우에는 단일상품을 취급하는 專門 도매점으로



로 육성하고 加工食品, 일반잡화류등 同一店舖에서 수개의 商品을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綜合都賣店으로 育成시켜 나가야하므로 特約代理店도 專門都賣店에 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들 當面한 課題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都小賣業 近代化促進法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案을 작성,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는 것이다.

流通構造改善에 관하여는 그 重要성과 時急性을 인식하면서 구체적인 시행과정에는 관계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급진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流通행정은 經濟행정중에서도 다른분야보다도 사회적 인습의 영향을 많이 받고있기 때문에 劃一的시책의 수립, 집행이 어려운 분야이므로 일정한 모델을 제공하여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間接行政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추진중인 都小賣業近代化促進法の 規制方向도 이러한 근본취지 밑에서 立案 制定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